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는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일을 실행에 옮겨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함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을 너무나 불신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정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님만이 아시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삶을 승리로 만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새해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변화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19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 6:5-7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_ 에베소서 4:22~24



가족예배순서

예배로부름	시편 23:1~6	인도자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찬송	다같이
기 도		말은이
성경 봉독	잠언 16:3	말은이
말 씀나눔	“하나님께 맡기자”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찬 송	559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잠언 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함께 암송할 말씀)

 우리 가정에게 주신 기도제목

가정 사명 선언문

2019년 표어는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 표어에 따라 “가정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 봅시다.

2019년 우리 가정은 _____

_____ 이(가) 되겠습니다!